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Industrial Revolution & Christian Education
- Sunday School Movement -**

류은정 (Eun Jeong Ryu)**

Abstract

This study is to view the Sunday School Movement that has been affected by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Sunday School Movement in Korea, and the context and method of the education that is in need in the field of the Sunday School of these days, where we are f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tudy starts with looking into the books of Christian Education history, where it tells about the Sunday School movement that is related to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the issues that the fields of Sunday Schools are having in thi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unday School Movement was to reform the phenomenon of absurdity that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had as a result, this study will define the needs of reformations which the Sunday School is hav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ill put up a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the Sunday School Movement of England in the 18th century had a meaning of social reform, and the Sunday School in the Korean church,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 should also have a meaning of social movement. So, this study will focus on viewing and groping the mission and tasks of the Sunday Schools, as a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in this kind of context. The Sunday School Movement will not remain just as an objective knowledge through the history, but it will assign meanings and motives to the future of the Christian Education by being reflected in the modern time contextual system and become a true

* 주일학교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기독교교육의 대표기관인 교회학교와 주일학교를 혼용(混用)함을 일러둔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학술연구교수(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5길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gracecomes@naver.com

2018년 02월 13일 접수, 03월 20일 최종수정, 04월 03일 게재확정

history. This study will bring up a clue for it.

Key Words : Industrial Revolution, Sunday School Movement, church school, 4th Revolution, social movement

이 연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1. 서론

인간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역사가 된다.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양질로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보다 더 인간답게 삶을 향유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공고히 자리하며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기독교교육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과거의 전통과 오늘의 기회와 미래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하나님나라의 시민직과 제자직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면 새로운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기독교교육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자리, 주일학교운동이라는 역사로 들어가고 그 역사적 획의 배경을 이끌고 있는 산업혁명을 들여다보며 한국의 주일학교운동과 흡사한 교육의 장면을 정리하려고 한다. 산업혁명, 주일학교운동, 한국의 초창기 주일학교운동의 역사를 오늘이라는 장면에서 만나며 새로이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할 때 품어야 할 교회학교의 비전을 품고자 한다. 교회학교가 당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삶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누리는 삶의 현장이고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과거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오늘날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주일학교운동이 한국의 교회학교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교회학교운동의 변화된 모습과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교회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담지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교회학교현장의 새로운 변모를 모색하는 것이

미래의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위한 단서가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사회개혁 운동의 모판이 되었던 처음 주일학교운동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운동(movement)을 기획하는 발걸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II. 주일학교운동의 태동과 발전

오늘날 교회학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학교(Sunday School)는 1780년 영국의 글루스터(Gloucester)에서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에 의해 시작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교육의 상징적인 모델로 정착하게 되었다(박상진, 2017: 160).

1. 주일학교운동의 시작

주일학교운동은 19세기의 시대적 주요 흐름이 되었던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어난 교육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새로운 교육운동(new education movement)과 그에 따른 사회개혁운동으로도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은 특별히 산업혁명과 연관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산업혁명과 주일학교 운동

산업혁명은 중세 말 이후 이루어졌던 소규모의 수공업 구조를 방적기나 방직기, 증기기관과 같은 기계의 도움으로 대량생산 구조로 전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가 공업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혁명은 실제적으로 신분과 직업의 부를 대물림하던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농부가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와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함으로써 이농현상과 대도시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신분이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 하였던 과거의 구조에서 개개인을 능력중심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고, 사회적 계층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가 되었다(양금희, 2000: 399).

영국을 근대화시킨 공장제도는 크게 향상된 생산력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거리를 매운 신흥 중산계급을 낳았다. 이 상향적 사회이동은 상류계급의 평형을 깨뜨렸다. 교육에 의해 지원받던 중산계급은 실용적인 사고 판단을 계속하면서도 사회계급의 사다리를 놓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자리를 찾았다(Gangel & Benson, 1992: 287).

18세기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에 산업혁명 직후 초기 자본주의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규모의 이농현상과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현상, 대도시 극빈계층의 교육복지 및 범죄의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한 환경 안에서 대도시의 어린이들은 고아로 버려지거나 무교육 상태로 방치되고 혹은 공장의 노동자로 기용되기도 하였다(양금희, 2000: 430).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18세기말에는 교회나 사회의 차원에서 어린이 복지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독일 경건주의 목사인 프랑케가 할레(Halle)에서 고아학교를 설립하고 후에 대규모의 종합학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선학교가 세워졌다. 로버트 레익스가 시작한 주일학교운동도 이와 같은 자선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시작되었다. 평신도 언론인이었던 로버트 레익스는 교도소 선교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 예방하고 사회개혁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신념으로 ‘주일학교’를 설립하였다. 주일에만 모인다고 하여 붙여진 ‘주일학교’(Sunday School)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어린이들이 와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성경, 요리문답을 함께 배웠다. 언론인이었던 레익스가 신문에 ‘주일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운동은 영국 전역에 알려지고 그 운동이 확산되었다. 주일학교는 이처럼 교회 밖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회 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양금희, 2000: 431). 글루스터 주간지 1783년 11월 3일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Lynn & Light, 1980: 24).

도시와 시골에 사는 농부들과 다른 주인들은 주간의 다른 어느 날보다도 주일에 재산피해를 더 입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이것은 이날(주일),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 무법(無法)의 젊은이들이 범하는 실로 막대한 양(量)의 손해인 것이다. 이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읽을 줄도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채용되었으며, 또한 읽을 줄 아는 어린이들이게는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 계획이 이미 채택되고 있는 교

구(敎區)에서는 어린이들의 품행이 크게 교화(敎化)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2) 주일학교운동의 확장

주일학교운동의 시작 10년 만에 영국 주요도시 36곳 중 26개 지역에서 주일학교가 세워졌고, 30여 년이 지난 1814년에는 모든 주요도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40개의 주일학교가 세워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중 창립자가 불분명한 20개의 학교와 도시 시민들이 세운 28개의 학교를 제외한 88개의 학교는 교회나 평신도 또는 신앙그룹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이다. 레익스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가 당시 사회의 시급한 필요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대중들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충족시킨 것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학교들 중에는 웨슬리의 복음주의의 영향 아래 자라난 장로교, 감리교 등을 통해 세워진 주일학교도 상당수에 이른다. 1803년에는 이런 다양한 배경으로 세워진 주일학교를 발전시키는 연합운동도 시작되었다. 이 연합운동은 아동과 젊은이의 종교적 가르침을 위해 교사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의 가르침을 증진하기 위한 성숙한 대화를 위하여, 영향력과 개인적 조력을 통해 새로운 학교의 증설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였다. 이들의 노력과 영향 속에 주일학교는 급여제에서 자원제로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백성우, 2008: 59).

이처럼 일종의 항의와 개혁운동으로 출발한 주일학교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Little and Big School의 모습을 가진다(Gangel & Benson, 1992: 287). 주일학교는 미국 개신교의 훈련장이다. 비록 미국 흑인의 종교 경험과 문화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주일학교는 개신교인의 종교문제 측면에서는 커다란(Big) 학교이다. 대중교육과 비교하자면 주일학교는 미국 사회의 변두리에 자리함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을 양육하는 측면에서는 귀중한 작은(Little) 학교이다. 주일학교는 미국의 크지만 작은 학교이다(Lynn & Wright, 1980: 15-16).

2. 교육운동으로서의 주일학교

산업혁명의 여파로 시골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일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공장의 기계와 함께 지내야했고 그들의 자녀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흔한 일상이 되곤 했다. 아동노동법이 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어린

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일쑤였다. 그나마 부모가 공장에 일하러가고 난 후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리로 나와 노숙인과 같은 생활을 하기가 십상이었던 그 시절, 아이들은 거의 부랑자 같은 생활로 비참하게 아동기를 보내야했다. 먹지도 못하고 공부할 기회, 배움의 시간을 누리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 시절에 마냥 이렇게 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변화, 교육변혁을 일으키는 힘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평신도, 로버트 레익스에 의하여 아이들이 모여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여자 교사가 등장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태우며 배움터가 생겼는데, 이곳이 바로 주일학교 운동이 펼쳐진 지점이다(백성우, 2008: 57).

주일학교운동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이 의기투합하여 헌신한 결과로 일어난 운동이다. 영국에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교육내용으로 시작하여 공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교육의 방법을 담아 이루어졌다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루어진 주일학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평신도들의 헌신과 특별히 주일학교교사들이 여성교사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공적인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심지어 교회건물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주일학교연합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서부개척시대에는 개척자들을 따라 고스란히 주일학교도 서부로 함께 움직였고 개척자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동부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공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남부에 주로 많이 자리했던 흑인들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는 데 공헌하며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복음교육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주일학교운동의 선한 영향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전도의 역할을 수행한 모습이다. 영국에서 초창기에 주일학교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교사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배움의 자리, 학교로 출석하도록 권면하였고 때로는 강권하여서 부모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반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전화심방하고 SNS를 활용하여 출석을 독려하는 모습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둘째는 성경공부를 제대로 하고 교리공부를 할 수 있는 배움터의 역할을 했다. 공식적인 교과서를 성경으로 두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중도덕, 생활규범들을 가르치는 공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신앙의 훈련을 주일학교는 충실히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백성우, 2008: 58).

셋째는 평신도 지도력 훈련의 통로로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김동주, 330). 평신도들이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공휴의 마음을 안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주일학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교육 지도력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음을 교회 교육 현장 속에서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도력을 기억하며 교육 목적을 책임지는 교역자가 자리할 수 없는 형편일 때 평신도 교회교육지도사 과정을 교사세미나의 형식으로 각 노회단위로 개최하고 있는 모습과 일맥상통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공헌점들을 가진 주일학교운동은 후일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건너오면서 그 자취를 이어가게 되었다.

넷째는 초기 주일학교운동은 가정과의 연계가 있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에 의해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 종교적으로 훈련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그들이 차츰 읽기와 쓰기를 익히게 되자 아이들의 변화에 영향 받은 부모들에 의해 주일학교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정웅섭, 1991: 33; 박상진, 2017: 162 재인용).

다섯째로 로버트 린과 엘리엇 라이트(Robert W. Lynn & Elliott Wright)는 『작지만 큰 학교: 주일학교 200년』에서 “주일학교는 비록 작지만 큰 학교”로서 그리고 주일학교가 죽은 학교이거나 죽어야 할 학교가 아니라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임을 주장하고 있다(Lynn & Wright, 1980: 16). 초기의 주일학교는 당시의 영국의 시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에 응답하는 형태의 교육운동으로 자리했다. 당시 주일학교는 일종의 자선학교로서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지를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1787년에 이미 25만 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할 정도로 이 운동은 확산되었다(정웅섭, 1991: 28; 박상진, 2017: 162 재인용). 영국 산업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필요인 교육적 무지를 깨우치는 성격을 지닌 주일학교는 단지 오늘날의 교회교육처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 분리적 교육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교육이었다(박상진, 2017: 163).

이처럼 가정과 학교와 연계된 교육의 영향력은 당시 주일학교가 기독교교육의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후일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에

도 나타남을 III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 : 사회교육으로서의 주일학교

산업혁명 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영국의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듯이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도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고 영국의 주일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은 교육선교의 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시작한 선교사역은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진다.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교육, 여성들이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교육의 현장에 일대 개혁을 일으킨 교육선교사역 중 하나가 ‘주일학교 운동’이었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의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조선에서 주일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88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로부터 한국이 해방되던 해(1945년)까지로 설정한다. 주일학교 자체의 변화에 따라 정리한 손원영(손원영, 158)에 따르면 제1기는 “신앙 교육적 주일학교와 사회 교육적 주일학교의 내적일치의 시기”(1888-1911)로, 제2기는 “사회 교육적 주일학교에서 신앙 교육적 주일학교로의 전환의 시기”(1912-1932)로, 그리고 제3기는 “조선적 주일학교의 형성의 시기”(1933-1945)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연구목적에 따라 영국의 주일학교태동과 비견되는 한국의 ‘주일학교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제1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신앙 교육적 주일학교와 사회 교육적 주일학교의 내적 일치의 시기로 알려진 제1기는 한국에 주일학교가 들어와서 하나의 교육제도로써 자리를 잡기까지의 시기로, 주일학교의 성격이 신앙 교육적 측면과 사회 교육적 측면이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묘하게 조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교회교육의 특성 중 하나가 기독교학교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시작된 사회 교육적 성격을 가지는데 주일학교가 교회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은 1886년 7명으로 이회학당을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모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후에 일요일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최초의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입

학한 학생들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거나 혹은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이었다. 이들은 쓸모없는 자들로 취급되어 여학교에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중으로 팔려가거나 거지가 되거나 굶어죽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소외계층 중의 소외계층인 여성들이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되었고 또 주일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손원영, 159). 이것은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튼 부인이 언급한 교육목표에 잘 담겨져 있다(Paik, 1970: 127-28).

우리의 목표는 여아들을 우리 외국인의 생활, 의복 및 환경에 맞도록 변화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 시기의 주일학교는 ‘유년주일학교’로 불리워졌다. ‘유년주일학교’의 시작은 1900년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노블목사의 부인이 ‘유년주일학교’라는 명칭 하에 5세로부터 15세까지의 아동을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한 바, 이것이 유년주일학교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아동 수는 200명, 교사는 20명이며, 공과는 통일공과를 사용하였다(정달빈, 1957: 52). 노블 부인(Nobel, 94)의 보고에 의하면, 두 명의 학생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신약전체를 암송하였고, 3명의 소녀는 4000개의 요절을 외웠다. 그리고 1910년 노블 부인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매우 활발한 유년주일학교에 감명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여 교육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한국최초의 주일학교 건물이다. 유년주일학교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로서 후에 한국 주일학교의 대명사가 되었다(손원영, 162).

주일학교는 ‘이교도 주일학교’(Heathen Sunday School) 또는 ‘확장주일학교’(Extension Sunday School)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교도 주일학교는 1907년 전주지방에서 불신자 자녀들을 모아다가 가르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1915년경부터 이것은 ‘확장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이교도 주일학교는 광주지역 주일학교 운동 중 독특한 것으로서 선교를 목적으로 비신자 아동들의 전도를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었다(이윤진, 101-118). 광주에서 스와인하트(Swinehart) 부부는 길거리 마을로 나가 더럽고 무지한 비기독교 집안 아이들을 모아서 노래 부르기, 요리문답, 성구암송, 초신자를 위한 교육을 했다(Preston, 110-113).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 전도의 제 일진으로 앞장섰던 확장주일학교는 교회 청년들이 주로 주일 낮에는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인근 촌락의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후에 이것이 기초가 되어 교회가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출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손원영, 163). 제중원의 의사였던 에비슨(Avison, 96)이 말한 것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다.

교사 모두는 시작 전 약 30분 동안 나가서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한 교사가 주일학교가 열리는 진료소에 있다가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나중에 아이들을 가장 많이 데려온 소년과 소녀들에게 상을 준다.

당시에 비신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주일학교에 출석하도록 교사들은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교사의 언어에 의존하는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와 발달단계에 맞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시도하였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긍정적 강화물이라 할 수 있는 그림카드, 성경책, 선물과 같은 ‘상장제도’를 학생전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근대적 학교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열악한 당시의 교육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로 양성된 한국인들에게는 서구 근대 교육학을, 제도권 학교교육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서구식의 새로운 교육방식을 접할 수 있었던 ‘근대적’ 교육공간이라 볼 수 있다(이윤진, 116).

IV. 주일학교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 Welcome 4차 산업혁명

초창기 주일학교 운동은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간적인 삶의 기본으로부터 교양교육, 신앙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졌고, 그 주일학교 운동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의 근대화교육의 모판이 되어주고 나아가 교육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까지 나아갔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운동처럼 이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전망함에 있어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교회학교의 모습으로 자리하는 교회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가

당시 지역사회의 교육을 등한시켰을 때 일어난 주일학교운동은 오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교회교육의 기회를 간과하지 않고 시대의 교육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임무를 되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의 내용과 방법들은 다른 모습이지만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교육의 모습을 통찰하며 오늘날 시대적 상황에서 이루어야 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단초가 될 것이다.

1. 산업혁명의 성격과 주일학교운동의 영향

한국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더 증가추세라는 암울한 소식을 이제 익숙하게 듣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움츠러진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낫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구절벽, 고령화, 학령기인구의 절대감소, 혼밥시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교회교육현장을 무겁게 휘감고 있는 시간 속에서 교육지도자들은 교회교육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무겁게 떠안고 있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는 말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먼저 시대적 정황으로 4차 산업혁명에게 말을 건넨다. 산업혁명시대에 주일학교가 이루었던 사회교육의 모습, 한국초기주일학교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시도했던 사회교육적인 교육과정들과 내용들을 통해 오늘 교회학교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교육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1) 산업혁명의 변화 :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을 크게 구분하면 1,2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육체적 영역에서 산업변화이고, 3,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 영역에서 일어난 산업변화이다. 1차는 증기기관이 인간 근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2차는 컨베이어벨트로 생산이 자동화되면서 노동집약적인 대단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였다. 3차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소통, 전달, 이해하는 지적 영역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뇌가 하는 판단, 추론, 예측하는 일을 기계가

담당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류지성, 2017: 110).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생산의 기계화를 이룩하였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생산의 기계화를 이룩하였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공학과 정보공학으로 생산의 자율화를 가져다주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전체적(holistic) 디지털화가 인류의 생활, 노동, 관계 등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기술공학적 혁명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해석학적 디지털 이해능력을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학문, 교육, 예술 등 사회생활전반을 디지털화하여 이로써 생활의 형태와 색깔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오인택 b, 2017: 417-420).

(2) 주일학교운동의 영향 : 19세기와 21세기의 만남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도시로 모여든 노동자들의 엄청난 증가는 자녀교육이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리의 아이들로 전락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아이들에게 교육의 소외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 주일학교운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교양지식을 갖추도록 격려해 주었다. 평신도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의 열정을 더하여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도모했던 흔적들이 쌓여서 주일학교운동으로 진일보하였다. 이러한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의 상황에 맞는 주일학교운동으로 변모하면서 한층 발전하여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교육선교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교육개혁의 현장으로 발돋움한 주일학교운동은 1차 산업혁명이후 지역교회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역할을 이루어내었던 기독교교육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19세기의 주일학교운동이 오늘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있는 21세기 한국 교회교육현장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처음 주일학교운동의 모습을 오늘 교회학교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여전히 교회학교는 평신도 교사들의 헌신으로 힘을 내고 있다. 교회안의 주방봉사, 차량 안내 등의 3D봉사로 분류되는 교사로서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교회학교현장의 모습을 주일마다 목도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산업혁명이후의 현장처럼 부모와 연계되는 교육

과정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와 연계하려고 노력한다.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교육 받는 것으로 인하여 부모들도 삶의 격려를 받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교육현장에서도 가정의 부모들과 연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목소리를 담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19세기의 주일학교운동에서는 빈민들의 자녀들이 주요대상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교회학교현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양질의 신앙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 있다. 1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리하는 주일학교운동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교회학교 현장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

구한말,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한 교육선교의 큰 모판이 되어 준 주일학교운동은 당시 교육의 소외계층이었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 가난과 무지몽매한 삶으로 내몰렸던 계층의 계몽을 위한 교육, 나아가 확장된 사회개혁을 위한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교육운동의 역동성은 고스란히 한국의 교회교육현장의 큰 기둥이 되어주었다면 이제 21세기의 한국의 기독교교육의 큰 현장이 되고 있는 교회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처한 교육의 대상자들, 학습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배려한 교육운동이 주일학교운동이었다면, 지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교회학교현장이 대면하고 있는 교육장면이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에서 소외되어진 사각지대에 처한 학습자들, 노인들, 다문화가족들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이 분명히 자리한다.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대상 함께 해야 하는 교육의 대상 학습자들을 교육의 장으로 초대해야한다. 다문화가족들, 노인들과 더불어 교회가 자리하는 지역사회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교회교육이 손을 내밀어주어야 한다.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지대에서 배제되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교육공동체의 움직임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과 교회학교의 변화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수준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황과 대상에 따른 전략적인 전도의 필요성과 섬김의 태도와 영성이 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함을 절감케하고 열정적인 신앙과 교양을 갖춘 신앙인으로서의 양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임성빈, 443-44). 시대의 사조에 따른 교육적 책무와 더불어 섬김의 태도, 생활 속 영성, 열정적인 신앙과 교양을 갖춘 신앙인으로서의 양육과 사회적 섬김을 강화하는 것이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시대의 사조로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회학교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통찰하고자 한다.

이제 점점 더 고도로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이 성큼성큼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저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며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분석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기독교교육기관으로 자리하는 교회학교는 보다 더 기민하고 섬세하게 대처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도구나 방법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교육은 성경적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기술과 문화가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적 본질이 디지털화되는 것은 아니다. 감각의 확장과 소통이 디지털로 바뀐 것일 뿐, 인간은 여전히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원자로 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들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사람으로서 가치를 한다. 집을 멀리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소통이 극대화되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되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문화도 다음세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관계형성을 통한 통전적인 영향력이 필요하고 다음세대의 영적 탐구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스마트 미디어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정기목, 2017). 이를 위하여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만나며,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적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학교현장을 돌아보고 주일학교운동의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운동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지금 현재 교회학교 안에 자리하는 다음세대들은 이른바 디지털을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새

로운 변화를 요구한다(이병훈, 2016: 21).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하여 보다 활발한 미디어, SNS의 사용을 넘어서서 디지털화된 교육기자재를 준비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공감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온유하고 겸허한 하나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교육하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실컷 디지털 휴대폰으로 열심히 통화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다. “아 그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디지털을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음세대의 모습도 인지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계화되어지는 세상을 헤엄치는 성도들이 보다 더 영적인 기민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자신 있게 표명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나라 시민,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손을 힘있게 내밀어주는 영성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학생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가가호호 방문하며 손잡고 교회로 이끌었던 평신도교육지도자들, 교사들의 깊은 헌신과 열정을 과거의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로 불러내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새로이 붙들고 소명의식의 떨기나무로 사명의 불꽃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현실과 교회학교의 새로운 과제

4차 산업혁명은 특별히 교육계에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마당을 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와 사회의 가치창조자로서 인간의 중심적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으며, 교육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교육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개인의 자아개발역량이 중요해졌다. E학습, blended learning, 학습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학습을 넘어서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교육전체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 새로운 교육의 형식과 제도를 여는 것, 여기서 빚어지는 다양한 의미들로 새로운 삶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의 도전이다(오인택b, 2017: 429)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한국의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 역량을 양육하기에 힘써야 하는 교회학교 본연의 사명을 되새겨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의 창조 질서 안에서 빚어진 피조세계들의 신비로운 법칙과 규범들을 발견하고 발명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천지창조의 질서들을 겸허하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창조적 책임(creative responsibility)을 가지는 존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란한 울림 가운데서도 인간은 이러한 창조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교회교육을 통해서 양육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고난 본연의 공감(empathy)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생득적인 공감력을 아름답고 씩씩하게 가꾸고 일구어갈 수 있도록 말씀교육과 기도훈련을 통하여 영적역량기반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울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인 책임감과 공감의 능력은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을 함양하는 모판이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세계를 돌아보고 챙겨주어야 하는 책임이 청지기 정신이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잘 다스리고 가꾸며 돌보아 주어야 하는 청지기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강점을 최대한 선용(善用)하고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고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의 문명과 지식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공감과 소통의 교육이 더 정밀하게 요구되어질 것이다. 심방을 회피한다고 하는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좀 더 정교화된 목회적 돌봄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마을목회의 개념도 부각되고 있는 이때에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어지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회도 한걸음 내디뎌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필연적으로 떠안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복음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모습을 오늘 세상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은 이제 새로운 운동(movement)을 시도해볼직하다.

3. 주일학교 운동의 새로운 움직임 : New Movement

이미 일반교육현장에서는 2017년과 2018년을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부모들에게 지침서를 배부하고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밖에서 집안의 전자제품을 조정하며 다루고 냉장고를 향

해 말하면 문이 열리고 스스로 요리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제공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등의 용어가 낯설지 않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움직여야 하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전망할 필요가 있다.

(1)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로 빚어지는 교육혁명은 가장 먼저 교사의 역할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상호연결, 대화와 협력으로 교수학습활동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교사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학습속도에 따라서 학습한다. 교사는 학습의 동반자요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습자중심의 학습문화는 함께 문제를 토론하며 지식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모험하는 디지털 학습의 습관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학습자의 개별화, 차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오인택b, 2017: 437).

이러한 교사의 역할변화는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성경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말씀’ 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교사 자신이 받아 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성경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내용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학생들과 나누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누며 함께 하는 성경공부방법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성경 시대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타임머신 성경공부방법을 기획해 볼 수 있다. 성경 속 인물들을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하여 만들어내어 대화하며 성경말씀을 만날 수 있는 가상환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청중이 되어 일방적으로 듣기만 강요당하는 현실세계를 이제 벗어나 함께 토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성경을 체험하는 테마 현장학습장을 교수(教授)자와 학습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교회학교 현장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학교교사들을 위한 강습회, 교사대학을 비롯한 교육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거듭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교회학교’ ‘4차 산업혁명과 교회 선생님’ ‘4차 산업혁명과 학부모’ ‘4차 산업혁명과 기질’ 등의 주제를 담은 교회학교의 계획이 새로이 기획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3040세대’ ‘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생애주기와 4차 산업혁명’ 등 각 발달단계별로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자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변화된 역할, 나아가서 가르치는 교육지도자로서 학부모와도 관련된 교육과정(curriculum)이 계획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1차 산업혁명당시 헌신한 교사들의 위대한 힘과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헌신을 새롭게 평가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모색하며 신앙교육의 본질을 보다 더 강도 있게 세우는 영적역량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속에 교회는 자신이 자리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를 교육공동체로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1차 산업혁명당시 지역교회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일학교운동이 일어나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듯이 오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에는 교회가 그 자신이 자리매김하는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연계하는 교육 목회적 안목을 키우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하여 사적신앙뿐만 아니라 공적신앙을 함양하는 교회학교의 교육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강영택, 2016: 15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사립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갈구하게 만들 것이다(설은주, 2017: 316).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교육을 모판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1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일학교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교양교육이 포함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속의 시민으로서 기본역량을 배우는 학습장으로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도시환경에서 마을 교육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관점을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의 특징을 담지하면서 세워야 한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특정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않고, 주종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회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을 단순히 전도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운동을 당장의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여기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슈자체를 공익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진일보 하게 하게 될 것이다(정재영, 2018).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교회학교의 교육은 이 땅 위에서 시민으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나라의 시민직을 감당하는 제자직의 수행을 위해서도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향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면서도 지역사회 주민들,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안에서 고결한 인격으로 빛나는 도덕의식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힘을 지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참여 속 행동과 반성적 숙고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은 가져야 한다.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능력, 미래의 비전(vision)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자연스러운 사회화의 장으로 부모세대들, 성인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설은주, 2017: 326).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한 아이를 교육하는 필요한 마을전체를 일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제자직교육과 시민직교육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 교회 교육은 성경과 교리교육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신앙의 바른 실천을 교육해야 한다(박상진외, 2016: 182).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

슈는 오늘 교회학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이슈들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지혜롭게 탈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과 시대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교육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와 마을과 지역을 잇는 교육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활동을 통한 복지생태계, 교회학교와 마을 도서관, 지역아동센터를 잇는 학습생태계, 셋째 교회의 성서교육과 함께 지역의 인문학 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생명망(life-network)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목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교육현장이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고 지역을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platform)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플랫폼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연결기능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점으로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며 상호성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플랫폼은 지역교회의 교육현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에서 관계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공교육, 농업, 마을주민과의 화해, 소외 노인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필요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격려한다(한국일, 2018: 94-95).

(3)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화시대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지역교회의 오후예배시간에 아이들, 젊은이들보다는 노인세대의 성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교회 밖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혁명시대가 도래했음을 요란한 소동 속에 알리고 있지만 교회 안은 여전히 그와 상관없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회 안 노인세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무관한 세대로 자리하며 나아가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왔던 저들의 신앙의 자취들, 삶의 흔적들은 그냥 자리지킴만 하는 채로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며 교회 안 구석으로 내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노인세대들도 분명히 교육목회의 대상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들을 위

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회학교가 성인교육의 한 영역으로 나서야 하는 교육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이 있기까지 믿음의 삶으로 수고한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디지털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 센터에서 실시하는 노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컴퓨터교육과정으로 연결해줄 수 있으며, 가장 손쉽게는 스마트폰사용법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면서 SNS를 통한 가족들 간의 소통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역전학습(Flipped Learning)을 통한 성서학당’을 운영할 수 있다. 성경공부를 하기 원하는 노인세대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반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미리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와서 성경공부에 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미리 지정하여 공지하고 가정에서 시청한 후 소감을 함께 모였을 때 발표한다. 드라마를 비롯하여 노인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들과 인문학적 내용을 담은 Talk Show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고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인증샷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을 훈련하는 장을 열어감으로 장년성경공부를 넘어서는 노인 교회학교, 노인주일학교운동을 새로운 모습을 시도할 수 있다.

노인세대만 따로 떨어져서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교육장면이 있다. 격대교육, 조손(祖孫)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 부모세대가 일터로 나간 사이에 손주를 돌아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의 모습이 적지 않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와 외조모 로이스의 모습을 떠올리며 ‘디모데-로이스’교육을 제안한다. 기획되어져 나온 교재들이 벌써 자리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좀더 디지털화된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로봇을 좋아하는 손자들과 아날로그적인 놀이움직임에 더 익숙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모두 배려한 교회놀이터를 조성해주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키우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신앙의 역사들을 엮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정돈해주면 디지털시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미디어의 위력 앞에서 아날로그의 대력(大力)을 누릴 수도 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속에 디지털화된 놀이현장들만

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할 때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과 기술을 의외로 더 많이 함양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자손녀들이 열심히 집중하며 몰두하는 디지털 놀이터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은 그저 기특하고 예쁘고 신기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노인세대들을 더 이상 교회안의 소외된 사각지대로 몰아내지 않고 이들을 당당한 교회학교의 구성원, 학습자로 세워드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성인학습자로 예우하며 디지털의 엄청난 위력과 속도 앞에서 갖추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권위를 배우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임애경, 2016: 128).

V. 결론

기독교교육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주일학교운동은 오늘 기독교교육의 대표기 관이며 현장으로 자리하면서 역사화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물어보고 성찰하며 기독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며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있다. 맨 처음 일어난 산업혁명의 여파로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을 성찰하고 특별히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교육운동을 돌아보며 오늘 현재 교회교육현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크나큰 파장을 대비하는 미래의 교회교육현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발걸음을 내디뎌보았다. 초창기 주일학교운동의 저력이 되었던 역사적 의식, 정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헌신과 열정을 담지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거대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더욱더 강력한 영성을 품고 교회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호기(好機)로 삼아 역량기반을 향상시켜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일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는 달리 영적 역량기반이 우선시된다. 영적 역량기반을 세우기 위하여 영성훈련과 더불어 시민직을 감당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동체성과 개체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시민교육도 담아내는 교회교육과정도 요구된다. 나아가 교회교육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공교하게 이루어야 한다. 교회교육의 대상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 열심히 성경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영적훈련으로 각성하는 것도 필

요한 동시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루어야 하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역량기반을 조성해주는 원심력의 사역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교회학교에서의 작은(Little) 움직임이 거대한(Big)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육이전에 영성을, 기술이전에 기도로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교육공간을 상상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육이 교육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세상을 스펙을 능히 이겨내는 복음적 영성과 성경적 신비를 회복하는 건강한 교육의 결과가 숨 쉬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택 (2016).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 박상진(편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pp. 148-183)**.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Kang, Y. T. (2016). Uniting Church and Local Community for Next Generatio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al Ecosystem* edited by Park, S. J.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김동주 (2008). 주일학교 운동의 아버지, 로버트 레이크스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논총**, vol.20, 315-341.
- [Kim, D. J. (2008). The Father of Sundayschool Movement, Robert Raikes'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onology*, 20, 315-341.]
- 류지성 (2017). 제4차산업혁명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신학논총**, vol 16, 107-138.
- [Ryu, J. S. (2017).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 to do in Educational Renovation? *Korean Theology*, 16, 107-138.]
- 박상진 (2017). **기독교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Park, S. J.(2017). *New Paradigm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백성우 (2008). 산업혁명 시대에 밝혀진 빛 주일학교 운동, 그 첫 100년의 부흥 (1780-1880). **교육교회**, Vol.369, 55-60.
- [Baik, S. W. (2008). Sunday School Movement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1790-1880). *Education Church*, 369, 55-60.]
- 설은주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김도일 (편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목회(pp.283-314)**. 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 [Seol, E. J. (2017). Koinonia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ducational Mini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dited by Kim, D. I. Seoul: Press KidokHankyo.]
- 손원영 (2008). 한국초기 주일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Vol 18, 153-178.
- [Sohn, W. Y. (2008). The Study of the properties in the earlier Korean Sunday School. *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153-178.]
- 양금희 (2000). **근대기독교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Yang, K. H. (2000). *Christian education thoughts in modern time*. Seoul: Korean

- Presbyterian Press.]
- 오인탁 (2017a). **우리 교육의 잃어버린 차원들**. 서울: 학지사.
- [Oh, I. T.(2017a). *The Lost Dimension of Our Pedagogy*. Seoul: HakJiSa.]
- 오인탁 (2017b).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30): 417-445.
- [Oh, I. T. (2017b). 4th Industrial Revolution & the task of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2(30), 417-445.]
- 이병훈 교육연구소 (2016). **트렌드 에듀 2016**. 서울: 다산에듀.
- [Lee, B. H. Education Institution, (2016). *Trend Edu 2016*. Seoul: DasanEdu.]
- 이윤진 (2008).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 101-118.
- [Lee, Y. J. (2008). Educational Activity in the 1910's Korean Sunday School. *Korean history of education*, 30, 101-118.]
- 임성빈 (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Yim, S. B.(2017). *21C Korean Society & Public Theology*.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임애경 (2016).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교육. 김도일(편저). **교회교육현장으로 나아가다(pp. 123-150)**. 서울: 동연.
- [Im, A. K.(2016). Aging Senior Education preparing for a super-aged society. *Toward Church Education Field* edited by Kim, D. I. Seoul: DongYeon.]
- 정기묵 (2017).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의 선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
- [Jeong, K. M.(2017). 4th Industrial Revolution & Mission in AI era.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PUTS Research Support.]
- 정달빈 (1957). **주일학교지도법**. 서울: 기독교서회.
- [Jeong, D. B. (1957). *Sunday School Teaching Method*.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정웅섭 (1991).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기독교서회.
- [Jeong, W. S. (1991). *Task & Method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odern Er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정재영 (2018). 교회가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려면. **데일리굿뉴스**, 3월6일.
- [Jeong, J. Y. (2018). The Participation of Church in Local Community. *Daily Good News*, March. 6]
- 한국일 (2018).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선교와 신학**, 44: 71-107,

- [Han, K. I. (2018). The Role of Local Church as Missional Church. *Mission & Theology*, 44, 71-107.]
- Gangel Kenneth O. & Benson, Warren S .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 유재덕 역. (1992).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Avison Oliver R (1913). A New Sunday School in Seoul, *Korea Mission Field*, April.
- Lynn Robert W. and Elliott Wright. (1980). *The Big Little School*.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 Noble, W. A. (1929). Some personal reminiscences of 35 years of Sunday School Work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May.
- Paik, L. G. (1970).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Preston, J. F. (1919). The extension Sunday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April.

논문초록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교육
: 산업혁명과 주일학교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류은정 (장로회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산업혁명시대에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을 고찰하고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의 시작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들을 정리하며 오늘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는 교회학교, 주일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정리한 문헌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일학교운동의 움직임을 18세기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오늘 교회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부조리 현상들을 개혁하기 위해 자리한 주일학교운동처럼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교회교육의 개혁을 정의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모판을 세우고자 한다.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18세기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이 사회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독교교육기관인 주일학교운동도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리한다. 그리고 오늘 시대적 정황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기독교교육의 현장으로서 이루어가야 하는 교육적 사명과 과제를 새롭게 전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한다. 주일학교운동이 기독교교육의 역사 안에 객관적 지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독교교육생태계로 등장하여 교육의 미래를 향하여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교육의 역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산업혁명, 주일학교운동, 교회학교, 4차 산업혁명, 사회운동

